

Design Your Lifestyle 생활을 디자인하면 행복이 더 커집니다

행복이 가득한 집

www.designhouse.co.kr

2016 5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집지
2016

서울리빙디자인페어 리포트

<명리> 작가 강현

나를 알고 남을 아는 명리학

옛 정취 살려 고친 천연동 한옥

잘 꾸민 아이방 인테리어 12

셰프들의 비법 '마이 파스타'

화이트 셔츠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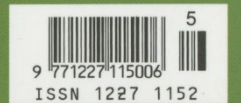
담양으로 떠나는 新 풍류기행

<행복>이 추천하는 가정의 달 선물

표지작가 | 김우영
Organic Style

자연이가득한집

₩8,900



서울을 찾은 리빙&디자인 크리에이터

지금, 이시대를 관통하는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는 무엇일까? 프랑스 트렌드 정보 회사 넬리로디Nelly Rodi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뱁상 그레구아르, 세계적 디자이너 에르완 부홀렉, 프리츠 한센Fritz Hansen 아시아퍼시픽&중동 지사 부사장 다리오 레이크를이 서울리빙디자인페어를 찾았다. 작은 카메라를 들고 전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대중과 호흡한 크리에이터들을 만나 리빙 디자인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을 물었다.



산업 디자이너 에르완 부홀렉Erwan Bouroullec
내면의 감정을 건드리는 디자인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삼성전자 부스에서 만난 세리프 TV의 디자이너 에르완 부홀렉

제스퍼 모리슨의 양문형 벤장고,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TV에 이어 삼성이 또한 한 번 가구 디자이너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주인공은 전 세계가 사랑하는 산업 디자이너 로랑&에르완 부홀렉 형제. '가구 님은 가진' 집안과 물아 일체를 이루는 완벽한 디자인'이라는 극찬 속에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 모습을 드러낸 세리프 TV와 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에르완 부홀렉을 만났다.

축하한다. 첫 번째로 디자인한 가전제품의 성공도, 내년도 무척이나 반갑다. 기능보다는 디자인에 치우친 제품일 거라 예상했는데, 실제로 보니 커튼모드 UI, 스마트 TV 기능 등 매우 균형적이다. 나는 TV가 우리에게 좋은 동반자이길, 그리고 집 안에서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길 바란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TV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데, 실제로 지금까지의 TV는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데다 수동적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해결책으로 TV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언어'를 제공했다. 커튼모드는 끄고 켜는 기능만 장착했던 기존 TV와 달리 사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TV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전자 제품 특성상 로딩되거나, 보고 싶지 않은 광고가 나오거나, 갑작스럽게 옆 사람과 대화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커튼모드를 이용하면 화면을 불러 처리하듯 가릴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등 레퍼런스가 있었을 텐데? 나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습관을 관찰하기 보다는 대상 자체에 집중해 그것에 진짜로 필요한 것, 개인적으로 딥 보이스deep voice라 표현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디자인한다. TV를 위한 첫 번째 솔루션은 커튼모드 UI를 개발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은 모바일 시대로 넘어간 요즘 시대와 관련한 것이다. 예전과 달리 모바일, 스마트폰, 작은 화면에 우리는 '종속'되었다. 스마트 TV를 통해 보다 큰 화면으로 '함께' 즐길 수 있길 바랐다. 즐거움을 공유하는 방법 말이다.

세리프 TV도, 부홀렉 형제의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으면 편안함을 느낀다. 주변 환경과 스스럼없이 어우러지면서도 디지털 세상에서 아날로그적 감성을 품고 있다. 디자인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시하는 미학이 있나? 편안함으로 시작해 미학이라는 단어로 질문이 끝났다. 이 두 가지는 요즘 내가 가장 몰두하는 부분이다. 유명한 프랑스 작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주인공이 흥좌에 적신 마들렌을 맛보면서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고 삶의 기쁨을 깨닫는 부분이 있다. 나에게 '편안한 아름다운'이란 이것을 이르는 말이다. 편안한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요소는 색감일 수도 있고 비율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디자인할 때에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떤 맛을 확

돋우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마다 내면에 숨어 있는 감정 이 디자인으로 분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

캐노피, 파티션과 같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 가구가 많은 것 또한 '편안한 아름다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가? 우리는 가구나 건축으로 편안함이라는 심을 만들고자 한다. 몸에게 자유를 주고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바일 역시 우리 몸에 휴식을 준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를 몸에서 분리시킨다. 뇌는 더 이상 몸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전화를 받으면서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 오랜 시간 서있어도 피곤함을 덜 느끼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몸에게 자유를 준다. 정말 현 시대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대다. 스마트폰처럼, 캐노피처럼 우리는 몸이 알아차리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

여러 톱 브랜드와 협업을 많이 한다. 때로는 그들을 설득하기도 해야 하는데, 본인이 고수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나? 대개 디자인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끝을 낼 수 없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그들을 설득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우리가 너무나도 개발한 아이디어를 던져서 그들이 거절할 수 없게 말이다. (웃음)



디자인할 때, 제품 자체에 오류이 집중한다. 제품이 원하는 것, 즉 딥 보이스를 정정해야 한다. 그리고선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떤 '맛'을 돋우게끔 할 것! 내면에 숨은 감정을 분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리빙디자인페어의 올해 주제는 '내 집, 내가 바꾸기', 즉 셀프 인테리어다. 셀프 인테리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임'이다. 우리의 삶은 늘 이동 중이기 때문이다. 나는 유목민의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디자인 해결책을 찾곤 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쉽게 바꾸고, 자신의 삶에 꼭 맞게 맞춘다. 사실 세리프 TV도 벽걸이형으로 만들 것 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하지만 '움직임'이라는 측면을 토대로 다리를 만들었다. 가구처럼 혼자

서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없을 수도 있으며 계속해서 형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움직임, 이동성 등이야말로 셀프 인테리어의 시작 아닐까? 우리 제호가 <행복이가득한집>이다. 당신에게 '행복'은 무엇인가? 나에게 딸이었다. 아이를 보면서 흥미로운 것은 '규칙을 모르다'는 것. 아이들은 아만 인처럼 행동한다. (웃음) 물건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바로바로 찾아내며 갖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얻고 만다. 침대에 누고 싶을 때면 거실 한복판으로 침대를 가져와 자신만의 성을 만든다. 그 위에 좋아하는 장난감을 얹고 다른 물건도 추가하고... 싫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그러면서도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물론 현실은 난감관이며 이러한 생각도 잠시, 20분만 지나면 짜증이 나지만!(웃음) 글:윤지연 사진:이영욱/지자

SERIF TV

"SERIF TV closes the gap between technology and environment"

Ronan & Erwan Bouroullec

지금 온라인으로 만나보세요

www.seriftv.com

SAMSUNG

1808-0001

